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IN YOUR PLACE
가제 : 당신이 머무는 곳
저자 : Rebecca Fleet
출판사: Transworld
발행일: 2018년 5월
분량 : -
장르 : 소설/ 심리스릴러

***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판권 계약 체결**
***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회복하려는 부부가 선택한 '집 바꿔서 살아보기', 낯선 사람이 남기고 간 과거의 흔적, 잊고 싶은 기억들**

프란시스와 캐롤라인을 태운 차는 네 시간이나 런던 쪽으로 달려갔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온 동네 집이 다 똑같이 생긴 작은 마을이었다.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낸 목적지는 집 안에 불이 모두 꺼져 있고 부부의 차가 들어서는 모습이 1층 거실 창에 순간 고스란히 비췄다. 캐롤라인은 차가 진입로에 들어서면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과 왠지 편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이내 그런 생각은 떨쳐버렸다. 애써 웃어보려고 애쓰다가 금세 침울해지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캐롤라인도 같이 애를 쓰는 중이었으니까. 사실 두 사람은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지만, 어린 딸을 엄마에게 맡기고 멀리 가려니 마음이 편치 않아 중도에 포기했다. 만만치 않은 비용과 낯선 환경이 두려운 것도 사실이었다. 생각보다 너무 조용하고 평범한 풍경에 프란시스는 주차를 끝내자마자 조금만 더 달리면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거닐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떨어댔지만 캐롤라인은 일단 여기서 시험 삼아 지내보자고, 내년엔 더 좋은 곳에 가자고 이야기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두 사람만 지낼 기회, 아이가 있는 곳과도 그리 멀지 않고 런던에서 관광도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캐롤라인이 '집 바꿔 살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심하고 이 집을 선택한 이유였다.

같은 시각, 리즈에 있는 부부의 아파트에 낯선 사람이 홀로 들어선다. 서서히 집 안을 둘러보다 문득 거울에 비친 거실 벽에 줄지어 붙어 있는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일부러 더 깊이 눈길을 주지 않는다. 2층 부부 침실에 올라가자 캐롤라인이 남긴 메모가 눈에 들어온다. "편히 지내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 캐롤라인" 자신감이 느껴지는 글자 하나하나를 한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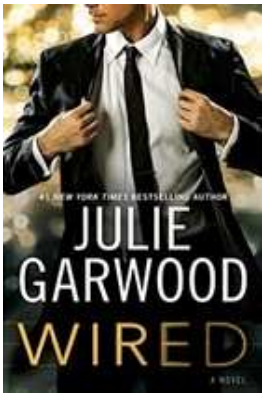
지켜본 낯선 방문자는 곳곳에 숨겨져 있을 이 집 주인의 비밀을, 어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많은 이야기들을 느긋하게 드러내리라 마음 먹는다.

아주 가느다란 줄 하나만 남았을 뿐, 끊어지기 일보 직전인 결혼생활을 어떻게든 되살려보기 위해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해보기로 한 캐롤라인과 프란시스는 가입한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던 '집 바꿔 살아보기' 사이트에서 어느 날 쪽지를 한 장 받는다. 런던 외곽, 치즈윅이라는 마을에 사는 누군가가 부부의 집과 바꿔 살아보고 싶다고 신청한 것이다. 2년여 전, 캐롤라인이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이후 점점 악화되기만 한 부부 관계에 전환점이 필요했던 두 사람은 고민 끝에 일주일간 그 신청자와 집을 바꿔서 살기로 결정한다. 그런데 치즈윅의 신청자 집은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부엌 식탁도 갓 설치한 흔적이 역력했고 집 안은 모델하우스처럼 휑하고 어딘가 인위적인 분위기가 가득했다. 벽에 걸린 그림도, 사진도 하나 없고 심지어 거울도 없었다. 하지만 그 집에서 느낀 의아함은 시작에 불과했다.

일주일 뒤, 다시 리즈의 집으로 돌아온 캐롤라인은 낯선 방문자가 남기고 간 흔적에 소스라친다. 잊어야 하고 잊고 싶었던 과거의 일들, 분명 그 일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증거가 발견된 것이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캐롤라인의 기억과 아직 남아 있는 감정을 누군가가 너무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다. 그것도 자진해서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했던 사람이. 이야기는 캐롤라인이 격정적인 사랑에 서서히 휘말려 들어간 2013년 겨울과 부부가 엉망이 된 삶을 되살리려 애쓰는 2015년 봄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며 들려주고, 사이사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방문자의 시각을 따라가면서 긴장감 넘치게 이어진다. 소름 끼치는 장면들, 잠시라 생각했던 배신이 남긴 씻을 수 없는 상처, 뜻하지 않게 퍼져버린 큰 여파의 영향력을 섬세하게 그린 심리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레베카 플릿(Rebecca Fleet)은 7년 전 'Fourth Estate' 출판사에서 두 편의 소설을 발표한 소설가의 가명이다.



제목 : WIRED
가제 : 와이어드
저자 : Julie Garwood
출판사: Berkley
발행일: 2017년 7월 4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소설/ 로맨틱 스릴러

* **"줄리 가우드가 또 다시 긴장감 가득하면서도 상당히 재미 있고 로맨틱한 스토리라인을 완성했다." – *AP* 통신**
* **"작가는 아름다운 여주인공이 근사한 남자 주인공을 유혹하듯 독자를 유혹한다." – *USA* 투데이**
* **"멋진 글 솜씨, 날카로운 유머, 위험한 사건과 긴장감이 가미된 빠른 전개와 그리고 섹시한 케미가 가득한 소설" – 북리스트**

보스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 앨리슨과 FBI 요원 리암. 사이버 세계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해킹이 이 두 사람을 한 곳으로 데려온다. 기관의 기밀 정보가 어딘가로 새어 나가고 있고, 그것이 내부인의 소행이라는 심증을 굳힌 리암은 아무도 모르게 용의자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만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건 탁월한 재능으로 남몰래 해커로 생활해온 앨리슨. 그러나 여느 대학생이라면 FBI 같은 국가기관에서 제시한 일거리를 덥석 받아들이겠지만 앨리슨은 달랐다. 리암의 제안을 아예 딱 잘라 거절하는 이 당찬 여대생에게 뭔가 깊은 사연이 있으리라 직감한 리암은 범인을 끈질기게 추적해온 수사관 기질을 십분 발휘하여 앨리슨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도무지 해커로는 보이지 않는 앨리슨의 엄청난 미모가 리암의 고집스러운 설득에 큰 동기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왜 앨리슨은 별 어려움 없이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단번에 거절한 것일까? 사람이 처음부터 서로에게 느낀 호감은 이런 갈등과 상관없이 점점 깊어만 간다.

앨리슨이 처음부터 해커가 된 것은 아니었다. 사실 단 2년 여의 시간 동안 그녀가 해킹으로 빼낸 돈이 8천만 달러에 달하니 그냥 재미 삼아 장난치는 해커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돈 중에 앨리슨의 통장에 들어 있거나 직접 쓴 돈은 단 1 센트도 없다. 네 살 때 사고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앨리슨과 언니 샬롯은 유일한 친척인 삼촌네 부부에게 입양되어 얹혀 살았다. 남들과 다른 앨리슨의 분석 능력이 처음 발견된 건 여덟 살 때, 언니가 이웃집 창고 세일에서 사온 500 조각 짜리 직소퍼즐을 몇 분만에 뚝딱 완성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는 삼촌네 외동아들, 윌 때문에 집안은 조용할 날이 없었고 늘 신경이 곤두선 숙모는 앨리슨과 샬롯에게 걸핏하면 떼어 놓겠다고 겁을 줬다. 갈 곳 없는 언니와 자신을 거둬준 건 너무 고마웠지만, 앨리슨은 늘 언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했다. 언니 외에 어디에도 마음 붙일 곳이 없다는 깊은 불안은 대학교 2학년 때, 앨리슨이 처음으로 대형 해킹 작업을 시도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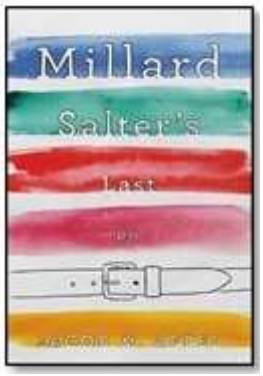
남은 재산을 모두 요양시설에 맡기고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의 통장을 다 털어간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시설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먹이는 어느 할머니의 인터뷰 장면은 앨리슨의 뇌리에 깊이 남아버렸다. 중국, 러시아 해커들 소행일 거라는 추측과 달리, 몇 달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앨리슨은 평범한 미국인 대학생 일당이 이 악랄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들의 비밀 계좌를 찾아내 FBI에 익명으로 모든 증거와 돈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앨리슨은 이후에도 불쌍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은 해커들을 찾아내 그 돈을 고스란히 돌려보내는 화이트해커로 살아왔다. 하지만 아무리 의도가 좋고 사적으로 쓴 돈이 없다 한들, 법률상 범죄를 저지른 건 마찬가지였다. 리암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두 번 생각해보지도 않고 거절한 이유도 그간의 행각이 발각될 경우 남은 평생은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몰래 해커로 일하면서 모델로도 활동할 만큼 뛰어난 외모를 가진 앨리슨을 설득하기 시작한 리암은 그녀가 숨기려는 것의 실체를 조금씩 알게 되고, 앨리슨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진 삼촌 내외와 사촌 윌의 사태도 알아낸다. 때마침 윌이 또 큰 사고를 치고 리암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면서 결국 앨리슨은 어쩔 수 없이 리암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다. FBI 정보를 빼돌린 해커를 앨리슨은 찾아낼 수 있을까? 함께 수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정착이라곤 생각해본 적도 없는 리암은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어느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두 사람의 협력은 범인을 찾는 것을 뛰어넘어 서로의 결핍되고 외로운 삶을 채워나가는 길로 나아간다.

시작부터 흡입력 있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작가의 매력적인 글 솜씨가 책장을 계속 넘기게 만드는 흥미진진한 로맨틱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줄리 가우드(Julie Garwood)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로 평단에서도 크게 호평 받는 인기 로맨스 작가로 꼽힌다. 전 세계적으로 4,000만 권 이상이 판매됐다. 대표작으로는 『Fast Track』, 『Hotshot』, 『Sweet Talk』, 『The Ideal Man』, 『Sizzle』, 『Fire and Ice』, 『Shadow Music』, 『Shadow Dance』 등이 있다.



제목 : MILLARD SALTER'S LAST DAY
가제 : 밀러드 솔터 씨가 자살하는 날
저자 : Jacob Appel
출판사: Gallery Books
발행일: 2017년 11월 7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소설/ 유머, 풍자

*** 『오베라는 남자』를 떠올리게 하는 유쾌하고 독특한 이야기, 자살을 결심한 정신과 전문의와 그 계획을 가로막는 온갖 사건들**

마침내 그 날 아침이 밝았다. 밀러드가 꽤 오랫동안 준비해온 날,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날이다. 일단 계획했던 대로 마지막 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평범하게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 집에 돌아와 침실에서 목을 맬 생각이다. 그는 죽기 전에 처리해야 할 일들, 정리할 일들을 꼼꼼히 목록으로 작성해서 하나하나 체크해가며 이 날을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죽기로 정한 날, 그는 57년 평생 처음으로 침대를 정리했다. 아무래도 그 방에서 목을 매고 나면 사람들이 밧줄을 끊고 싸늘한 자신의 시체를 침대에 누일 가능성이 높기에 깔끔하게 만들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새벽 6시가 조금 안 된 시각, 밀러드는 첫 번째 아내와 두 번째 아내를 떠올리며 매트리스 커버를 주름 없이 펴고, 토퍼도 잘 정리한 뒤 이불까지 말끔히 펼쳐서 일급 호텔 못지 않은 침실로 정리하는 데 성공했다. 마지막 날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정신과 의사로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자살 충동을 가라앉히느라 애쓴 사람이 왜 갑자기 자살을 결심한 것일까? 두 번째 아내 이사벨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신장 투석실 간호사와 제법 뜨거운 관계를 유지할 만큼 몸도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었다. 첫 번째 아내 캐롤과 함께 낳아 기른 세 아이들도 잘 자랐다. 첫째 아놀드는 세인트루이스에서 맥주 유통업계 컨설턴트로 자리를 잡아 잘 살고 있고, 둘째 딸 샐리는 부유한 선박 설계기사와 결혼을 해서 천사 같은 두 쌍둥이 딸을 낳고 역시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 물론 밀러드의 막내, 셋째 아들 라이샌더가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긴 했다. 마흔 셋, 명문 대학을 졸업한 지도 어언 20년이 넘었건만 막내는 한 번도 제대로 월급 받고 일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자와 진지하게 사귀어본 적도 없었다. 어디 아프거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쩐 일인지 정착을 하지 못하고 매년 세금 내는 것조차 혼자 처리하지 못해 밀러드가 도와줘야 할 정도로 무기력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생을 끝내기로 결심한 마지막 날, 밀러드가 점심을 라이샌더와 먹기로 정한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다.

일단 죽는 날을 정한 뒤부터 밀러드에게 자살을 정말 감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의지가 그만큼 확고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떻게'였다. 정신과의사로서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결심하지만 잘못된 방법을 택하는 바람에 실패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겁을 집어

먹는다. 그래서 수면제를 애매한 양만 입에 털어 넣거나, 어설픈 사고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일단 약물은 발견되는 시점에 따라 자살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판단으로 밀러드의 후보에서 제외됐다. 일산화탄소를 들이키는 것도 효과 좋은 방법이지만 자칫 이웃집에 흘러 들어가면 원치 않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역시나 제외됐다. 테러범처럼 건물을 몽땅 날려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불법 총기를 하나 구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정식으로 권총을 하나 구할 수도 있지만 그 지루하고 불필요한 온갖 신고, 등록, 허가 절차를 견디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밀러드의 주변 사람들 중에 그런 위험천만한 무기 밀반입과 조금이나마 연관된 인물은 하나도 없었다. 결국 남은 방법은 목을 매는 것.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밀러드는 다른 방법보다는 그나마 제약이나 피해가 덜 한 방법을 직접 올가미를 만들어서 의자를 밟고 올라가 목을 거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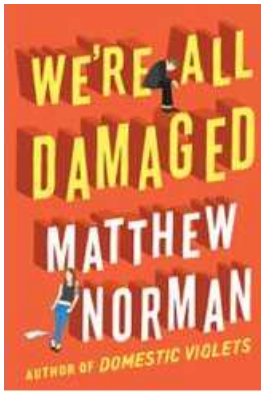
밀러드가 이토록 꼼꼼하게 자살을 준비한 이유는, 늙어서 힘없이 몸도 마음도 허물어지는 과정을 겪고 싶지 않아서다. 먼저 세상을 떠난 둘째 아내, 친구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절대 저렇게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은근히 무시당하고, 혼자서는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동정을 받는 노인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겉으로는 평소와 같이 의대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환자들을 진료하며 틈날 때마다 자살을 준비해온 밀러드는 마침내 자신이 정한 생애 마지막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지막 일정을 시작한다. 그런데 재혼 이후 근 30년 가까이 연락을 끊고 지낸 첫 번째 아내 캐롤과의 만남, 두 번째 아내 캐롤의 묘소 방문, 그리고 최근까지 연인으로 지낸 간호사 델리아와의 만남과 막내아들 라이샌더와의 점심식사는 밀러드의 예상을 뒤엎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지금까지 특별한 사건이라곤 없던 그의 삶에, 하필이면 마지막 날에 난생 처음 겪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그는 그냥 작별인사를 고하면 될 줄 알았던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들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새삼 깨닫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오른 화제작 『오베라는 남자』를 상기시키는 소소하고 유쾌한 한 남자의 엉뚱한 이야기를 다룬 재미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제이콥 아펠(Jacob Appel)은 『The Man Who Wouldn't Stand Up』, 『Scouting for the Reaper』, 『Phoning Home』, 『Einstein's Beach House』 등 여러 편의 장편과 단편 모음집을 발표한 작가이다. 보스톤 리뷰 단편상(Boston Review Short Fiction Competition), 윌리엄 포크너- 윌리엄 위즈덤 어워드(William Faulkner- William Wisdom Award) 등을 수상했다. 브라운 대학교와 고담 작가 워크숍에서 글쓰기를 가르쳐 왔으며 「뉴욕타임스」, 「시카고 트리뷴」 등 여러 매체에 에세이를 기고해 왔다.

제목 : WE'RE ALL DAMAGED
가제 : 멀쩡한 사람은 없어
저자 : Matthew Norman
출판사: Little A
발행일: 2016년 6월 1일
분량 : 282 페이지
장르 : 소설/



*** *2016*년 *5*월 아마존 '킨들 퍼스트 셀렉션'으로 공개, 종이책과 전자책 판매량 *30*만 부 돌파**
*** 체코 판권 계약 체결 / 아마존 킨들 스토어 *1*위, 아마존 평점 *5*점 서평 *1,400*건 이상 등록**
*** "놓아줄 건 놓아주고 살아가는 법에 관한 영리하고, 웃기고, 놀랍도록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 「커커스 리뷰」**

일명 '애플비 대학살 사건'으로 앤디 카터의 인생이 모두 처참히 망가진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자신이 당한 일, 저지른 짓을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멀리 달아나고 싶어서 고향이자 생활 터전이던 오마하를 떠나 뉴욕으로 도피한 앤디의 삶은 정장을 차려 입고 출근하던 안정된 회사원에서 바텐더로, 꽤 널찍한 교외 주택에 살던 중산층 생활에서 코딱지 만한 아파트에 사는 고달픈 생활로 바뀌었다. 어쩌다 그는 아무 연고도 없는 뉴욕에서 시시한 생활을 하게 됐을까?

사건은 결혼한 지 5년이 좀 지난 어느 날, 하고많은 장소 중에서도 '애플비' 레스토랑에서 벌어졌다. 나중에 되짚어보았을 때, 앤디는 사건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일이 미국 어디에나 있는 흔해빠진 체인 음식점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다. 양념이 잔뜩 발린 치킨을 그가 열심히 뜯는 동안 맞은 편에 앉은 아내 카렌은 어쩐지 영 말이 없었다. 최근 들어 부쩍 대화가 줄었다고 생각했던 터라 앤디는 여느 어리숙한 남편들이 건네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을 지껄여대기 시작했다. "여보,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카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 때도 앤디는 그런 잡다한 수다를 그만하라거나, 카렌이 주문한 핑거 치킨의 맛이 아주 형편없다는 의미로 알아들었다. 순진무구한 얼굴로 자신이 먹던 치킨을 크게 한 조각 떼어내어 카렌에게 내민 후에야 앤디는 비로소 그 말의 진짜 뜻을 이해했다. 카렌이 원한 건 이혼이었다.

남들이 유쾌하게 생일파티를 벌이는 음식점 한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는 카렌을 보며 앤디는 자신의 삶이 나락으로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카렌은 근육이 우락부락한 동네 응급구조대원과 이미 얼마 전부터 눈이 맞은 상황이었고, 어떻게 해도 그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앤디가 예감한 것처럼, 결혼생활이 파토나면서 앤디의 나머지 삶도 기다렸다는 듯 한꺼번에 무너졌다. 이혼과 배신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 그는 넋 나간 사람처럼 지내다가 중요한 회의를 놓치고, 그 일로 꽤 안정적이라 생각했던 직장에서 쫓겨났다. 한때는 자선 모금에 동참하려 5 킬로미터 마라톤도 거뜬히 해냈던 체력도 바닥이 나기 시작했다. 급기야 가장 친한 친구 결혼식에서 만취해 피로연 도중에 행사장에서 구토를 하며 온 파티장을 난리통으로 만들어버린 사건도 발생했다. 카렌의 아버지, '옛' 장

인어른의 얼굴을 향해 주먹도 날렸다. 이래저래 온 동네 창피한 일은 다 저질러버리고 백수가 된 앤디는 도저히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처지가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과 정반대로 너무나 잘 지내는 카렌의 근황이나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아주 먼 곳으로,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만 가득한 곳으로 훌쩍 떠나버린 것이다. 그런데 비좁은 아파트에서 홀로 고양이와 살며 바텐더로 지낸 지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뜻밖의 호출이 왔다. 앤디가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곧 세상을 떠나실 것 같으니 어서 만나러 오라는 엄마의 전화였다.

아직 '애플비 대학살 사건'의 여파에서 헤어나지 못한 앤디는 도저히 고향 사람들, 특히 카렌을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할아버지 임종을 놓칠 수도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향한다. 잠깐 작별인사만 하고 돌아와야겠다는 앤디의 계획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변화를 맞이한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부모님의 뒤바뀐 삶이었다. 존경 받는 회계사였던 아버지는 그 동안 은퇴를 하고 남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 페인트 총으로 죄 없는 참새를 마구 쏘아대는 이상한 취미를 시작했다. 문제는 얼마 전 부모님이 고급 주택단지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사설 경비원의 눈에 그런 아버지의 유치한 장난이 아주 거슬린다는 것. 심지어 아버지는 다섯 살짜리 어린애처럼 경비원의 구박과 잔소리에 더 신이 나서 총을 쏘아대고 있었다. 아버지가 은퇴하고도 두 분이 큰 집에 이사를 갈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출세 덕분이었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토크쇼를 진행하던 어머니는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마이크 앞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표출했고, 그것이 보수적인 주민들과 언론의 주목을 대번에 사로잡은 것이다. 인기가 급상승하자 보수 언론의 1인자, '폭스'로 진출해야겠다는 야망을 품은 어머니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오직 그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 온갖 창피한 발언이며 행동은 다 하고 다녔다. 두 분의 결혼생활이 위태로워진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 골치 아픈 상황 속에서 할아버지를 찾아간 앤디는 자기 또래의 여자가 오래 전부터 할아버지의 단짝 친구로 지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데이지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첫 만남부터 온몸에 뒤덮인 문신으로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기더니, 앤디에게 자신만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앤디의 인생을 바로잡아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데이지는 대체 뭘 믿고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걸까? 부모님의 관계는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염려했던 대로 카렌은 그 덩치 큰 응급구조대원과 이미 정착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앤디의 눈에 띄기 시작한다. 씩씩하게 굴어보려고 했지만 금세 정신이 무너질 것 같은 지경이 된 앤디는 속는 셈 치고 데이지의 조언을 받아보기로 하는데.... 직장도 없고, 자신 역시 말 못할 과거의 아픔에 짓눌린 카렌은 과연 앤디를 구해낼 수 있을까? 수많은 아이러니와 코믹한 사건들 속에서 아픔을 딛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나갈 용기를 찾아가는 인물들의 진솔한 고투가 따뜻하게 그려진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매튜 노먼(Matthew Norman)은 볼티모어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 2011년에 발표한 데뷔 소설 『Domestic Violets』은 '굿리즈 초이스 최우수 유머 상(Goodreads Choice Award in Best Humor)' 후보에 올랐다.

NON- FICTION

제목 : BLOOD, SWEAT, AND PIXELS
가제 : 피와 땀, 그리고 픽셀
(부제 : 비디오게임을 탄생시킨 성공과 혼란에 관한 이야기)
저자 : Jason Schreier
출판사: Harper Paperbacks
발행일: 2017년 9월 5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기술(컴퓨터, 게임)

*** 브라질 판권 계약 체결**

*** "저자는 비디오게임 개발 과정의 신나고 지옥 같은 부분을 모두 포착했다. 두툼한(그리고 쓸데없이 은밀한) 창의적 커튼의 이면을 영리하게 들여다본 책" – 『*Extra Lives and Apostle*』의 저자 탐 비셀**

*** "꼼꼼한 조사와 잘 쓴 글이 돋보이는 책. 게임 개발자의 좋을 때와 나쁠 때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느라 마음이 아팠다." – 게임 '기어스 오브 워(*Gears of War*)' 개발자 클리프 블레진스키**

비디오게임의 인기는 여전히 뜨겁다.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 외에 컴퓨터나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하는 게임은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비디오게임 시장은 더 이상 일부 '소수'의 취미생활이라고 하기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며 미국에서만 한 해 시장규모가 3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여러 인물이나 동물, 괴물이 등장해서 미션을 해내거나 전투를 벌이는 것이 끝인 것 같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섬세한 스토리와 작전, 전략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임 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장르와 상관 없이 입을 모아 게임 하나가 탄생하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을 뛰어넘어 '3D 업종'으로 불리는 비디오게임 개발 산업의 이면, 창의력과 그래픽 좀 할 줄 아는 정도의 실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이 생소하면서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분야의 이야기를 이 책은 집중적으로 다룬다.

게임 개발은 1970년대부터 시작됐고, 그 당시에는 10대, 20대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며칠 밤만 뚝딱 새면 그럴싸한 게임 하나가 나오곤 했는데, 왜 투자 규모도 기술도 모두 폭발적으로 성장한 지금도 게임 하나 만들어내는 일이 '기적'에 비유될 만큼 힘겨울까? 굳이 그렇게까지 피와 땀을 갈아 넣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저자는 이 단순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여 전 세계적으로 알려

진 대표적인 비디오게임 개발자들을 만나 심도 깊은 인터뷰를 실시하고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준다. 제대로 완성되면 큰 '한 방'이 될 수도 있지만 최소 1년 이상 제대로 된 삶을 포기하고 매진한 일이 단숨에 헛수고가 될 수도 있는, 어쩌면 도박과도 같은 비디오게임의 개발 절차는 개발자들로 하여금 처음부터 빠져나갈 길이 없는 미로에 발을 들이거나,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에 떨어진 것 같은 절망, 고통, 불안감을 느끼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은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아이러니한 열정, 누가 억지로 시켜서는 절대 감내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작업에 제 발로 뛰어드는 괴짜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각 장에 소개된 게임마다 예술적인 부분에서 넘어야 하는 산들,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 시장의 흐름과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압박감, 투자자와 개발자의 불가피한 갈등과 촉박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빠듯한 일정을 이겨내고 상상할 수도 없는 혼란을 거쳐 얼마나 힘겹게 완성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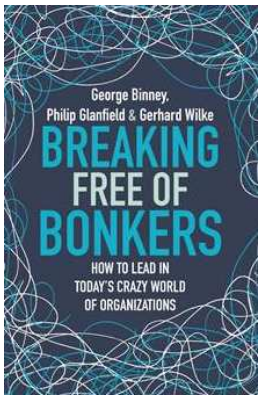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게임 매니아 모두에게 게임 산업의 흥미로운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만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1. 필라스 오브 이터니티
2. 언차티드 4
3. 스타듀 밸리
4. 디아블로 III
5. 헤일로 워
6. 드래곤 에이지: 인퀴지션
7. 쇼벨 나이트
8. 데스티니
9. 위처 3
10. 스타워즈 1313
맺음말

<저자 소개>

제이슨 슈라이어(Jason Schreier)는 비디오게임 산업과 문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웹사이트 '코타쿠(Kotaku)'에서 뉴스 편집을 맡고 있다. 「뉴욕타임스」, 「와이어드」 「엣지」 등 다양한 간행물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BREAKING FREE OF BONKERS

가제 : 정신 나간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라

저자 : George Binney, Phil Glanfield, Gerhard Wilke

출판사: Nicholas Brealey International

발행일: 2017년 8월 24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경영

***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원으로 꾸준히 선정되어 온 영국 애슈리지 경영대학원 강사, 졸업생들이 전하는 리더십과 경영의 핵심 전략**

*** '정신 나간 짓'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조직의 비효율적이고 이상한 관행을 뿌리 뽑고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경영 방법**

회사 경영진들은 계속해서 구조조정과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데, 조직 구성원들은 형식적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부서가 분명 있지만 실제로 하는 업무나 수시로 변하는 조직 구조로 인해 어떤 분야에 속해 있는지 스스로도 의아해 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의 말보다는 컴퓨터 시스템이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며 업무가 진행되거나, 이해할 수 없이 긴 시간을 들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긍정적인 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계획과 정책을 준비한다. 생산성이나 효율성이라곤 전혀 느낄 수 없는 방식으로 장시간 회의만 이어지는데 제 시간에 처리해야 할 업무는 매일 산더미처럼 쏟아진다. 위에서는 통제하고 압박할 수단과 방법을 계속 더해가고 서로간의 신뢰도는 점점 낮아진다. 생산적이고 따뜻한 조직 문화? 꿈도 꾸기 힘들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야만 한다는 조직 안팎의 요구를 따라가기도 벅차다. 중견 기업인들과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리더십을 가르치고 경영 전략을 지도해온 세 저자는 이 듣기만 해도 답답한 상황이 산업 분야와 상관없이 수많은 회사들의 공통된 고민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이 만난 한 기업인이 '정신 나간 짓'이라고 한 마디로 정리한 것에 착안하여 책 제목을 정했다는 세 저자는 이 혼란스럽고 끝이 보이지 않는 사태가 대체 어디에서부터 왜 시작되었는지 분석하고, 질서정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영 전략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조직마다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지만, 회사가 똑바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무수한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혼돈만 커져버린 상황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아주 작은 목표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 세 저자는 생생하게 와 닿을 만한 실제 사례들을 풍부하게 제시하면서 너무 많은 전략과 리더의 의무보다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조직 경영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준다.

성공의 필수 요소라는 창의성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영진도, 실무진도 다 알지만 바꾸기 귀찮아서 계속 이어가는 비생산적인 업무들, 쓸데 없는 곳에 귀중한 자금과 에너지가 투자되고 꼭 필요한 곳은 자원도 인력도 부족해서 허덕이는 사태,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들, '업무'의 범주로 인정되지도 못하는 소모적인 서류 작업들 등 모두를 제 정신으로 일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들부터 정리해야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이 책은 숱한 실패와 경험을 통해 체득했든 처음부터 남다른 재능으로 인지했든, 일반적인 비생산적 경영 방식에서 탈피한 사례들을 집중 분석하여 이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왜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기업은 이들과 달리 늪과 같은 비효율적이고 스트레스만 가중시키는 업무 방식의 늪에 빠져버렸는지 그 이유도 함께 분석한다. 이어 리더가 조직 전체를 늪에서 끄집어내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명심해야 할 가치, 리더십 전략을 알려주고 애써 만들어낸 변화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사항도 꼼꼼하게 일러준다. 날카로운 통찰력과 진솔한 조언이 돋보이는 유익한 경영서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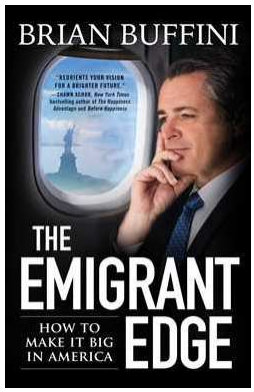
머리말 – 왜 이 책을, 왜 지금 읽어야 할까?
1부 – 전부 제정신이 아닌 건가?
  1장. 나만 그래?
  2장. 미친 세상 – 모조리 뒤바뀐 리더십도 경영 방식
  3장. 변화 중독 – 어쩌다 우리는 변화에 찌들어버렸나
  4장. 전략 – 현실과 환상의 분리
2부 – 실현 가능한 리더가 되라
  5장. (충분히) 안정된 자아
  6장. 그룹 속에서 우리의 모습
  7장. 조직을 지역사회로 여겨라
  8장. 정치학, 그리고 권력
  9장. 회의는 생산적으로
  10장. 정신 나간 짓은 이제 그만 – 시범 사례 (이하 생략, 총 12장, 맺음말, 부록으로 구성)

<저자 소개>

조지 빈니(George Binney)는 캠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 인시아드(INSIAD)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원으로 꾸준히 선정되어 온 영국 애슈리지 경영대학원에서 비즈니스 전략, 조직 발전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노키아, 쉘, 볼보 등 유명 기업과 의사, 과학자, 변호사, 회계사 등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경영과 리더십 컨설턴트로도 활약하고 있다.

필 글랜필드(Phil Glanfield)는 신학과 사회복지를 공부한 후 노팅엄 대학교와 애슈리지 경영대학원에서 조직 컨설팅 분야를 공부했다. 공공 분야와 민간 산업체를 대상으로 개인과 단체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게르하르트 빌케(Gerhard Wilke)는 애슈리지 경영대학원 부교수 겸 리더십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다. 주로 영국, 독일, 덴마크 기업과 공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팀 개발, 조직 관리에 관한 전략을 지도해 왔다.



제목 : THE EMIGRANT EDGE

가제 : 이민자의 무기

저자 : Brian Buffini

출판사: Howard Books

발행일: 2017년 8월 1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비즈니스

*** 「포브스」 지가 선정한 *2017*년 최고의 도서목록에 포함**

*** "사려 깊고 인상적이면서 실용적인 책. 감사와 긍정적인 태도를 성공의 연료로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이점을 배울 수 있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Happiness Advantage*』의 저자 숀 아처**

*** "미국에 기회가 풍성하고,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곳임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저자와 다른 이민자들이 꿈을 이룬 '성공 방정식'을 소개한 책이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12 Week Year*』의 저자 브라이언 *P.* 모란**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열아홉 살에 단돈 92달러만 들고 미국에 온 소년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북미 지역 최대 규모의 경영 교육업체로 꼽히는 회사를 운영하며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또 한 편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그저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 저자의 인생 여정이 남다른 까닭은 이민자라고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다는 고생담이 아닌, 이민자라서 오히려 유리했던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직접 몸을 부딪히면서 느끼고 확인한 이민자의 장점, 미국에서 처음부터 나고 자란 사람들은 쉽게 이루지 못하는 성공을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실현시키는 비율이 더 높은 이유를 날카롭게 분석한 저자의 결론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경쟁에 지칠 때, 왠지 나만 밀리고 불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정신 바짝 차릴 만한 자극제가 될 만하다.

저자는 자신이 일구어낸 성공이 결코 쉽지도 않았다고 단언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격려를 '아무나 할 수 있을 만큼 수월한 일'로 오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사실 기회의 땅으로 불리던 미국도 이제는 예전처럼 못 다 이룬 꿈을 펼칠 만한 곳이라 할 수 없다는 견해가 팽배하고, 최근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 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밀레니엄 세대의 절반 이상은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실현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암울한 생각을 내놓았다. 자신을 비롯해 미국에 건너온 다른 이민자들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던 꿈을 현실로 만든 경우가 많은 이유를 오래 전부터 고민하고, 분석하고, 그 답을 수백 만 명에게 가르쳐온 저자는 이러한 생각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훨씬 비관적이지만, 실제 가능성은 여전히 높고 누구든 제대로 된 길을 찾아 온 힘을 다한다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포브스 지가 선정한 '400대 성공 기업' 리스트의 주인공 대다수가 이민자인 이유, 낯

선 땅에서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공통적인 비결을 총 일곱 가지로 요약하여 이 책에서 하나씩 설명한다. 무엇이든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 무슨 일이건 하겠다는 의지, 내게 당장 득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더 힘쓸 줄 아는 헌신, 감사하는 마음,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한 투자, 인내심, 그리고 겸손함이다. 저자는 100달러도 채 안 되는 돈을 가진 가난한 청년에서 미국 최대의 부동산 재벌이 되고 거대한 경영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기까지 직접 느끼고 성공한 이민자들에게서 발견한 이 핵심 열쇠의 가치를 실제 사례와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민자는 물론 낯선 환경, 산업 분야에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값진 가르침이 될 만한 이야기가 가득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이민자의 이점을 획득하는 방법
1부. 낯선 땅에 온 낯선 사람
- 이민자의 본질적인 불리함 (1- 5장)
2부. 기회를 보는 눈
– 이민자의 본질적인 유리함 (6- 10장)
3부. 무엇이 이점일까?
– 성공한 이민자의 일곱 가지 특징 (11- 17장)
4부. 이점을 얻는 법
– 성공을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할 21가지 장애물 (18- 24장)
결론. 이민자의 이점을 직접 발견하라

<저자 소개>

브라이언 버피니(Brian Buffini)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나 열아홉 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현재 북미지역 최대 비즈니스 트레이닝 업체로 꼽히는 버피니 앤 코(Buffini & Co.)를 운영하며 37개국,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실시해 왔다.

제목 : FASCISM
가제 : 파시즘
저자 : Madeleine Albright
출판사: Harper
발행일: 2018년 4월 10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역사/정치

*** 초판 *15*만부 인쇄 예정, 체코, 네덜란드, 영국 판권 계약 체결**

*** 여성 최초 미국 국무장관 출신이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저술가인 외교학자가 면밀히 분석한 파시즘의 역사와 최근 또 다시 떠오른 파시즘의 위협**

노골적으로 극우 보수주의를 내세워온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 프랑스의 극단적인 극우파 정당 대표 마린 르펜 돌풍, 러시아를 비롯해 반민주주의와 반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세력의 영향력 확대,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과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과 같은 초강경파 독재 지도자의 상승, 최근에 벌어진 이 놀라운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 국제 사회에서 존경 받는 외교분야 전문가이자 여전히 두터운 팬 층을 거느리고 있는 미국 전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새로운 저서에서 전 세계의 자유와 번영, 평화를 가로막는 이 위협을 파시즘의 부활로 해석한다. 1980년대 말 냉전이 끝난 이후 모두가 민주주의의 대승리를 확신하고 두 번 다시 독재 체제가 등장하지는 않으리라 확신했지만 30여 년이 지난 현재, 세계 곳곳에서 압제와 강제력을 당연하게 내세운 정치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유럽 전역, 아시아 일부 지역, 미국을 휩쓴 이 뜻밖의 흐름을 지켜보며 저자는 과거 파시즘과 너무나 흡사한 특징들을 발견했다고 설명한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저자는 히틀러와 스탈린 체제를 실제로 겪으며 두 번이나 강제 추방당해야 했던 기억과 미국의 외교 책임자로 해외 독재정권의 대표와 직접 대면해본 경험을 토대로 자유를 위협하는 이 극단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세계를 분열시키고 편협한 시각을 키우는 현재의 경제, 종교, 인종, 문화적 요소를 분석하는 한편 무솔리니부터 두테르테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민중을 선동하는 정치가가 사람의 공포심과 분노를 자극하는 동시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상적인 고통을 손쉽게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권력을 독식해온 과정을 보여준다. 이미 역사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준 바와 같이, 파시스트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들의 주장은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한 순간 그 틈새를 치고 한층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함께 저자는 이 난감한 정세를 타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 제시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킨다.

저자는 풍부한 외교적 지식과 국제 무대에서 축적해온 경험을 토대로 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파시즘이 세계적으로 다시 떠오르는 추세인지 날카롭게 분석하고 무엇이 이 부적절한 변화

를 유도했는지 그 요인을 찾아보면서 현재의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 이어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사태를 막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재앙과 테러리스트의 활동, 극심한 종파 분쟁, 전에 없던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 사태와 인권 침해, 다층적 협력 관계의 분열과 같은 되돌리기 힘든 결과를 안게 될 것이라 설명한다. 더불어 저자는 소셜 미디어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활용, 노동 방식의 변화, 지속성과 안정성, 도덕성을 추구하는 평범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삶이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제안과 함께 경제 성장 촉진, 빈부 격차를 비롯해 도시민과 시골 거주자, 여성과 남성, 숙련된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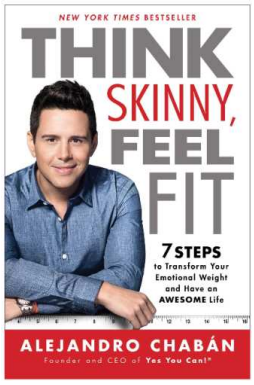
현재의 정세와 역사, 미래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다룬 의미 있는 정치 분석서이다.

<목차>

- 미정

<저자 소개>

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는 여성 최초로 미국의 제64대 국무장관을 지냈다. 현재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외교술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국립 국제관계 민주주의 연구소 대표, 해리 S. 트루먼 장학재단 대표,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 그룹과 올브라이트 캐피털 매니지먼트 대표를 맡고 있다. 2012년에는 '미국 대통령 자유 메달(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수여 받았다. 『Madam Secretary: A Memoir』(2003), 『The Mighty and the Almighty』 (2006), 『Memo to the President』 (2008), 『Read My Pins』 (2009), 『Prague Winter』 (2012) 등 다섯 권의 저서 모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제목: THINK SKINNY FEEL FIT

가제: 날씬한 생각, 쫙 빠진 기분

(부제: 감정의 무게을 줄이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7단계 변화 전략)

저자: Alejandro Chabán

출판사: Atria Books

발행일: 2017년 6월 6일

분량: 256 페이지

장르: 건강(다이어트)

*** 체중 감량 과정을 쓴 데뷔작 『*From Fatty to Hotty*』로 뉴욕타임스 조언/지침서 분야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른 저자의 신작**

*** "저자의 열성적인 팬들에게는 감동을 주고, 새로운 독자들도 저자의 진솔함과 유용한 계획에 마음이 끌릴 만한 책" – 퍼블리셔스 위클리**

*** "마음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책이다. 저자의 이야기는 강력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 – 에미상 수상 저널리스트, 마리아 안토니에타 콜린스**

"살만 빼면 데이트도 할 수 있을 텐데." "살이 빠지면 이런 우울함도 사라질 텐데." 체중이 심하게 불어난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한다. 좌절감을 느끼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남들보다 훨씬 큰 몸집과 살 때문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살만 빼면 이런 문제들과 침울한 기분까지 한 방에 싹 날아갈 것처럼 여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흔히 우리가 요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방법으로든 살을 빼고도 결국 또 과식과 폭식에 의존하는 기존의 생활 패턴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음식 중독에 초점을 맞춘 건강서나 다이어트 지침서는 많지만, 실제로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고 영양 컨설턴트가 된 저자는 '내면'에 주목한다.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도 울적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 때면 음식부터 떠오르는 것은 정서적 비만, 감정의 무게가 빠지지 않아서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눈에 보이는 신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과도하게 잠식한 이 감정의 무게를 덜어야 비로소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140 킬로그램이 넘는 초비만 상태에서 85 킬로그램 이상을 감량하며 미국 전역의 주목을 받은 저자는 다이어트 성공기를 밝힌 저서에 이은 이 두 번째 책에서 바로 그 감정의 무게를 빼는 특별한 다이어트 비법을 소개한다.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나 온 식구가 음식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집안에서 자란 저자는 통통한 몸매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모님 밑에서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먹는 아이로 살았다. 하지만 10대가 되자 그냥 토실토실한 정도가 아닌, 건강을 위협하는 정도로 살이 쪘고 급기야 140 킬로그램이 넘는 육중한 비만아가 되었다.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그럴수록 위축되는 삶이 너무 싫었던 그는 살을 빼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온갖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체중 감량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거식증과 폭식증이 찾아왔다. 왜 살을 빼도 속에 차오른 분노와 슬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까? 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심한 경우 위 절제술을 받고도 다시 예전처럼 살이 또 찌는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까? 이런 고민 끝에, 저자는 머릿속을 가득 채운 감정의 무게가 건강을 해치고 체중을 계속 증가시키는 숨은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저자는 오랫동안 존재하는 줄도 인지하지 못했던 이 감정의 무게를 시원하게 덜 수 있는 방법을 총 7단계로 정리하여 이 책에서 설명한다. 저자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들이 사이사이에 제시되어 웃음과 눈물을 자아내고, 단호하고 강압적인 주장보다 간결하면서도 따뜻함이 묻어나는 글로 독자를 설득하는 저자의 설명은 읽다 보면 절로 공감하게 되는 힘이 있다. 우리의 몸과 감정은 하나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과식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스스로 찾아 해소함으로써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생활 방식을 알려주는 유익한 건강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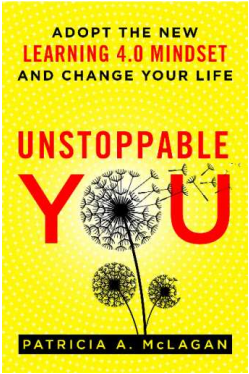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1부: 감정의 무게란?
1. 나는 과체중일까, 과체중이라고 나 혼자 생각하는 걸까?
2. 감정이란 무엇일까? 내게 어떤 영향을 줄까?
3. 나를 뚱뚱하게 만드는 감정은 무엇일까?
2부. 감정의 무게를 줄이는 7단계 전략 – 삶을 바꿔놓을 변화를 준비하자
4. 1단계: 자기 자신에게 헌신하라
5. 2단계: 감정의 무게를 확인하라
6. 3단계: 목표를 세워라
7. 4단계: 건강을 찾아라
8. 5단계: 꿈꾸던 삶을 현실로 만들어라
9. 6단계: 행동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라
10. 7단계: 현재에 집중하라
3부. 여기까지는 시작에 불과하다!
11. 어둠 속에서 빛이 있는 곳으로
12. 몸과 마음, 영혼의 균형

<저자 소개>

알레한드로 차반(Alejandro Chabán)은 저술가이자 강연자, 공인 영양 컨설턴트,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돕는 프로그램 '예스 유 캔(Yes You Can!®)'의 CEO이다.

제목 : UNSTOPPABLE YOU
가제 : 학습은 멈출 수 없다
저자 : Patricia A. McLagan
출판사: 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
발행일: 2017년 5월 30일
분량 : 250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교육



*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자신만의 커리어를 찾고 평생 우수한 학습자로 살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 영국 경영컨설턴트 업체 엔비시아 러닝 *(Envisia Learning)* 수석 연구자 케네스 노웍**
* **"학습이 평생 동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큼 더 귀중한 가르침은 없다. 우리 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 '뇌 기반 리더십협회' 소속 수석 과학 사무관, 댄 라덱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존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수많은 것들을 배우며 살아간다. 학습이 평생의 과정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고, 이는 과거의 선조들이나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한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학습 '방법'은 어떨까? 세상이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변하고, 지금도 빠른 속도로 또 다른 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학습 방법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교육 컨설턴트로 활약해온 저자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평생 학습자인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에 알맞은 학습 방식을 터득함으로써 생존 능력과 적응 능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저자는 우리의 학습 방식이 발전하는 과정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비교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떠올려보면, 프로그램 오류나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고 추가하기 위한 '업그레이드'가 수시로 진행된다. 저자는 이와 같은 원리로 급변하는 주변 상황에 더 알맞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습 방법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고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등 더 빨리, 더 수월한 학습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한다. 태어날 때 우리의 학습 능력을 1.0 버전이라고 한다면, 이 기초 버전으로는 남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모방하면서 스스로 시도해보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가장 원초적인 수준의 학습이 가능하다. 학교에 입학하면 학습 방식이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선생님과 부모님이 제시하는 학습의 틀 내에서 우리는 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과 기술을 배운다.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성인이 되어 자율적으로 삶을 꾸려가야 할 시기가 되면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학습의 틀도 직접 수립하고 체계적인 구조가 없는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배울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다른 사람의 학습을 돕고, 모든 정보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는 이 3.0 버전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그로 인해 자율적인 학습 기술을 익히지 못해 쏟아지는 정보로부터 자신이 배울 부분을 찾거나 무수한 아이디어를 통합하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심한 경우 무작정 시도하고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는 원초적 버전으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이에 저자는 2.0 버전 이후 학습 방식이 적절히 향상되지 못한 사람들이 우선 3.0 버전의 기술을 이해하고 익히도록 도와준 뒤 최종적으로 또 다른 차원의 학습 방식인 4.0 버전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방법을 알려준다. 상상력을 십분 활용하는 방법, 뇌와 신체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는 법, 의식적인 자기 변화, 피상적 학습에서 벗어난 기술과 지식, 정보의 심층 학습법,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학습 방법 등 21세기에 가장 적절한 학습법을 누구나 따라올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하고 유용한 지침과 팁도 풍성하게 제시된다. 책 뒷부분에 포함된 다섯 가지 툴 킷도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목차>

학습 4.0 버전 업그레이드 소개
우리는 모두 평생 학습자
1부. 학습의 새로운 지평
1. 공부하는 뇌: 신경과학적인 사실
2. 공부하는 자아: 심리학적인 사실
3. 급변하는 세상: '학습 4.0 버전'의 필요성
4. 정보 필드: 과부하일까 기회일까
2부. 4.0 버전 학습자가 알아야 할 일곱 가지 수칙
5. 배우려는 욕구에 귀를 기울여라
6. 미래로 데려다 줄 도르래를 만들어라
7. 더 멀리, 더 넓은 곳에서 찾아라
8. 점과 점을 연결하라
9. 금광
10. 평생 기억해야 할 학습 내용
11. 배운 것을 삶으로 옮겨라
3부. 배움에 대한 사랑 (12- 14장)
4부. 학습 4.0 툴킷 (툴1- 툴5)

<저자 소개>

팻 맥래건(Pat McLagan)는 학습과 리더십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Change Is Everybody's Business』, 『On- the- Level: Performance Communication at Work』, 『The Age of Participation』 등이 있다. 미국 교육훈련협회(ATD)로부터 사고훈련 분야에서 이룩한 공헌을 인정받아 상을 수상하였으며 국제 성인·평생교육 협회 회원으로 선출됐다.

THE SALT FIX by Dr. James DiNicolantonio (Harmony Books) is getting some serious attention. This hot topic is causing lots of controversy and the book is getting mentioned in articles around the world! Please share with any publishers who are currently reviewing or have licensed the book. Rights have sold to Piatkus/UK, Nakladatelstvi Jota/Czech Republic, Sun Color Culture/Taiwan, Lifestyle/Romania.

- U.S. http://wrvo.org/post/fixing-salt-issue
- UK: https://www.theguardian.com/science/2017/aug/08/a-danger-to-public-health-uproar-as-scientist-urges-us-to-eat-more-salt
- Italy: http://tg24.sky.it/salute-e-benessere/2017/08/09/nutrizionista-james-dinicolantonio-piu-sale-nella-dieta.html
- Indonesia: http://dunia.rmol.co/read/2017/08/09/302314/Peneliti:-Klaim-Konsumsi-Banyak-Garam-Baik-Untuk-Tubuh,-Salah-Dan-Berbahaya-
- Israel: http://www.ynet.co.il/articles/0,7340,L-4997023,00.html
- Belgium: https://www.demorgen.be/wetenschap/nieuw-boek-dat-pleit-voor-meer-zout-in-ons-dieet-is-een-gevaar-voor-de-volksgezondheid-b06dfbd1/
- Canada: https://www.pressreader.com/canada/national-post-latest-edition/20170810/281535111087292

Previous Praise

"The truth about what salt is really doing to your body." **–The Telegraph**

"James DiNicolantonio shakes up a nutritional hornet's nest with his new book… [A] smart and interesting account of [the ferocious scientific debate]." **–Michael Bader, author of More than Bread and Butter, for Alternet.org**

"DiNicolantonio's premise completely overturns the conventional wisdom about salt consumption." **– Take Care Broadcast, wrvo.org**

"Thought-provoking, evidenced-based information for anyone interested in improving their health." **–Library Journal**

"Why we should embrace the salt shaker, not shun it." **–Canadian National P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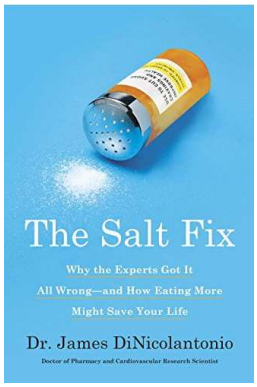
"Dr. DiNicolantonio takes us away from hype and hyperbole to a place of rationality as it relates to salt. This extensively researched text lets us finally erase the guilt all of us felt when catering to our desire for this important mineral." **—David Perlmutter, MD, #1 New York Times bestselling author of Grain Brain and The Grain Brain Whole Life Plan**

"In his new book The Salt Fix, Dr. James DiNicolantonio shatters the age-old myth that salt is a cause of heart disease. He also makes excellent recommendations for a heart-healthy diet that your tastebuds will really enjoy! If you want to learn how to make food taste great again, discover tips to improve your heart health, and be enlightened about the truth about salt, you've got to check out this book!" **—Dr. Josh Axe, author of Eat Dirt, founder of DrAxe.com**

"For decades, doctors and mainstream medicine have recommended that you lower your salt intake, but in this well-researched and surprising book, Dr. DiNicolantonio explains why this seemingly well-informed advice is, in fact, wrong. The Salt Fix provides the advice and the program you need to add back the salt and in the process improve your health and your waistline." **–Robb Wolf, New York Times bestselling author of The Paleo Solution and Wired to Eat**

"The medical profession has done a disservice to millions of people by misleading them into thinking they need to avoid salt in their diets. Our blood is salty; our tissue fluids are salty; we need salt to thrive. In The Salt Fix, Dr. DiNicolantonio charts the ill-begotten thinking that got us to this sorry state of almost universal salt avoidance, and imparts invaluable scientifically-sound advice for adding this healthful substance back into your diet. Dr. DiNicolantonio's book will help you improve your health by actually adding salt back into your favorite foods." **–Michael R. Eades, M.D., New York Times bestselling author of Protein Power**

"This superb book busts many misconceptions around salt consumption. It's a must read." **–Dr. Aseem Malhotra, Consultant Cardiologist and advisor to UK's National Obesity Forum**



제목 : THE SALT FIX
가제 : 소금으로 해결하라
저자 : James DiNicolantonio
출판사: Harmony Books
발행일: 2017년 6월 6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건강

*** "저자는 우리가 소금에 관한 떠들썩한 광고와 과장된 정보에서 벗어나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한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그레인 브레인』의 저자 데이비드 펄머터**

*** "소금 섭취를 둘러싼 수많은 오해를 깨뜨린 훌륭한 책. 반드시 읽어야 한다." – 영국 국가 비만 포럼 자문위원회, 심혈관 전문의 아심 말호트라*(Aseem Malhotra)* 박사**

건강에 아예 무관심한 사람이 아닌 이상,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트륨 섭취량을 줄여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대대적인 외침은 수시로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기사 제목으로나, 보건 기관이 실시하는 건강 캠페인으로 자주 접할 수 있다.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소금의 양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소위 '건강 지침'에서는 티스푼 하나 정도 이상, 구체적으로는 나트륨 기준으로 하루 2,300 밀리그램 이상은 먹으면 안 되고 이마저도 노인이나 고혈압 환자는 더 줄여서 나트륨 1,500 밀리그램 미만, 티스푼 2/3 정도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권고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재 미국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나트륨 섭취량에 신경 쓰고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25 퍼센트 가량은 의료 전문가에게서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말 소금은 적게 먹을수록 건강에 이로울까? 저자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굳어버린 소금에 관한 이 인식을 완전히 뒤엎는 주장을 이 책에서 펼친다. 소금을 적게 먹으면 오히려 병이 생기고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저자의 파격적인 주장은 심장 질환을 비롯한 만성 질환의 진짜 주범은 설탕이라는 설명으로 이어진다. 현재까지 과학계에서 발표된 소금과 혈압, 심장 질환의 관계에 관한 500편 이상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저자는 이 당황스러운 결과를 실제로 확인했다고 설명하면서 건강한 대부분의 사람은 소금 섭취량을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단언한다.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무기질이다. 중요한 것은 인체가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금도 적당량이 균형 있게 공급되는 것이지 무작정 줄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 소금에는 '중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따라다니며 담배처럼 끊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저자는 지방이 비만의 주범으로 여겨지다가 최근 들어 그 오해가 풀리고 생선과 아보카도, 올리브 등 건강한 지방의 섭취가 오히려 권장되는 흐름으로 바뀐 것처럼 소금 역시 이제 오해를 풀어줄 때가 됐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단 음식, 탄수화물을 더 많이 찾게 되고 체내에서는 마치 밥

을 못 먹은 것처럼, 반쯤 굶은 상태라는 신호가 분비되기 시작한다. 결국 설탕과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면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비만, 인슐린 저항성, 제 2형 당뇨, 심혈관 질환, 만성 신장질환, 고혈압과 같은 문제가 시작된다. 줄여야 하는 것은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며, 소금을 몸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섭취하면 수면 문제나 몸에 활력이 없는 문제, 집중력, 생식 기능, 성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건강하게 소금을 제대로 다시 찾아서 먹는 식습관이 왜 필요한가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저자는 올바른 종류의 소금을 인체에 필요한 양만큼 잘 먹는 식생활을 구축할 수 있는 5단계 식단개선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소금이 심장 질환의 원인이라는 해묵은 오인을 풀고 탄탄한 과학적 근거를 통해 심장은 물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소개한 유익한 건강서다.

<목차>

머리말. 소금 통을 두려워하지 마라
1장. 하지만 소금이 고혈압을 만드는 원인 아닌가요?
2장. 인간은 소금을 먹어야 산다
3장. 소금과의 전쟁 – 어쩌다 이 백색 결정이 마녀사냥의 주인공이 되었나
4장. 심장병의 진짜 원인
5장. 굶주리는 신체
6장. 소금을 통한 회복: 소금이 부족하면 설탕 중독이 시작된다
7장. 꼭 필요한 소금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
8장. 소금으로 해결하라: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라
맺음말. 올바른 소금을 찾아서

<저자 소개>

제임스 디니콜란토니오(James DiNicolantonio)는 심혈관 전문가이자 약학 박사로 미국 세인트 루크 중부 심장연구소(Saint Luke's Mid America Heart Institute) 소속의 세계적인 건강, 영양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의학계 학술지에 200여 편의 논문을 저자, 공저자로 발표하였으며 「Progress in Cardiovascular Diseases」,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Pharmacology & Toxicology」 등 여러 학술지의 편집 자문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Absolutely thrilled to share the upcoming **DEMOCRACY IN CHAINS** review from the 8/20 issue of the **New York Times Book Review**!

It's a great one, really getting to the heart of Nancy's points and directly putting her in great company with Jane Mayer, Kim Phillips-Fein, and Steven M. Teles. But the best part is probably that last paragraph, which says:

"Power consolidation sometimes seems like a perpetual motion machine, continually widening the gap between those have power and money and those who don't. Still, **DEMOCRACY IN CHAINS** leaves me with hope: Perhaps as books like MacLean's continue to shine a light on important truths, Americans will begin to realize they need to pay more attention and not succumb to the cynical view that known liars make the best leaders. "

I've attached the PDF, but you can also access it online here.

In related news, Nancy will be interviewed by Pamela Paul for the *New York Times Book Review* Podcast, which will go live on the 20th.

That's all in addition to other great hits from the Boston Review, DISSENT (with a full review on the way), the Winston-Salem Journal, the Politics and Polls podcast, and much more.

Full lineup below!

Democracy in Chains
Nancy MacLean

Publicity Line-Up

National Radio/TV

Democracy Now – 6/29
Sirius XM Radio, Stand Up with Pete Dominick –6/5
Sirius XM Radio, Michelangelo Signorile Show –6/14
The Majority Report with Sam Seder – 6/27
Thom Hartmann Show – 6/15
Nicole Sandler Show (Progressive Voices Network)– Interview, 7/19

National Print/On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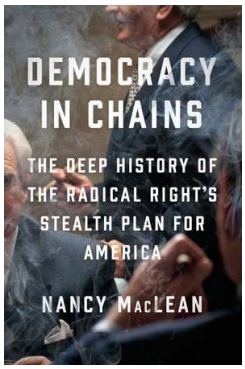
The Atlantic – Review, July/August issue
The New York Times Book Review – Review, 8/20
Boston Review – Review, 8/10
New Republic – Interview, 6/27; Review, October issue
Salon – Ran Bill Moyers Q&A, 7/20

Washington Post – Positive Piece, 7/25
New York Review of Books – Review, date tk
O, The Oprah Magazine – Summer Reading List, 7/1
Slate – Interview, 6/22
NPR.org – Review, 6/18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 Q&A, 7/19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 piece on controversy, 7/19
Truthout – Progressive Pick of the Week and excerpt, 7/6
Truthout – Interview with Nancy, 7/9
Alternet – Excerpt, 7/12
Alternet – Podcast Interview, 7/31
BillMoyers.com – Excerpt and interview, 7/13
Bloomberg – Mention, 8/1
Washington Post – Mention in piece on public choice theory, 7/21
Jacobin – Review, 6/26
Financial Post – Mention, 7/7
Forbes.com – Mention, 8/6
Bloomberg View – Critical piece, 7/21
Diane Ravitch – Blog post about podcast, 8/1
Dissent – Mention, 8/10
Dissent – Review, October issue
In These Times – Review, 8/1
DailyKos – Piece on book at KPFK interview, 7/13
S-USIH – Defense of Nancy, 7/17
Alt-Right Origins, Defense of Nancy, 7/13
Reason – Critical piece, 7/20
American Spectator – Critical Piece, 7/26 (and another, 7/27)
Pittsburgh Tribune – Critical Mention, 7/25
Reason – Review, date tk
The Public Eye – Excerpt, date tk
Salon – Mention, 6/29/17
Los Angeles Review of Books – Review, date tk
Bloomberg View – Mention, 5/30
Washington Post – Commentary, 6/28 (plus these two)
Mises Institute – Review, 7/13
National Review – Commentary, 6/27 and 6/29
Liberal Currents, - piece on Public Choice Theory, 7/28
Quartz – Mention in HBO/Confederacy piece – 7/30
ScienceBlogs – mention, 7/29
Medium – Commentary, 6/25
2 Dope Boys – Podcast Interview, 7/11

More Print/Online
NC Policy Watch – review, 8/1
Winston-Salem Journal – review and event listing, 8/6
Fredericksburg Free Lance-Star – review, 8/5
Boulder Daily Camera – mention in op-ed, 8/4
Boulder Daily Camera – Letter to the Editor, 8/8
Greensboro News & Record – mention in op-ed, 8/5
Greensboro News & Record – review, 7/27
Virginia Gazette – mention, 8/9

Politics and Polls, podcast interview, 8/10
Pittsburgh Post-Gazette – Review, date tk
Metro Asheville – Event Listing, 7/8
Metro Asheville – Review, date tk
New York Journal of Books – Review, 6/13
Duke Alumni Magazine –Page Turners, Fall 2017
Shepherd Express – Review, date tk
International Socialist Review – Review, date tk
Washington Book Review – Review, 7/30
The Bowed Bookshelf – Review, 6/7
New Labor Forum – Review, Winter 2017
Women's Review of Books – Review, date tk
Laurel of Asheville – Mention, August issue
Slagmark: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 Review, 11/1
Publishers Weekly – Starred Review, 4/10
Kirkus Review – Review, 5/1; Interview, date tk

Local Radio
WNYC, The Leonard Lopate Show (NYC NPR) – 6/16
KPFA, UpFront – 6/12
KPFA, Upfront – 8/8
WUNC, The State of Things (Raleigh NPR) – 7/19
KALW, Your Call (SF) – 7/10
WGVU, Morning Show (Grand Rapids) – 7/6
WFHB/Interchange (Bloomington, IN) – 8/8
KCBX, Turning Page (Santa Barbara) – 6/19
WICN, The Public Eye (MA) – 6/18
WNUR, This is Hell (Chicago) – 6/17
WHMP, Bill Newman Show (MA) – 6/15
KHSU, Through the Eyes of Women (CA NPR) – 6/15
Jefferson Public Radio (OR) – 6/15
Napa Valley Broadcasting, Jeff Schechtmann – 6/15
KGNU, Chatting Up a Story (Denver) – 6/15
WMNF, Radioactivity (Tampa NPR) – 6/15
KPFA, Behind the New – 6/14
KPFA, Living Room – Date TK
WICN, Inquiry (MA) – Date TK
KAOS, Olympia Community Radio - 7/21
WORT, Public Affair – 7/27



제목 : DEMOCRACY IN CHAINS
가제 : 족쇄에 매인 민주주의
저자 : Nancy MacLean
출판사: Viking
발행일: 2017년 6월 13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사회과학(정치)

*** "자유주의가 대세를 차지하고 정부를 장악한 *60*년간의 과정을 꼼꼼하게 추적한 책" – *NPR***
*** "미국 정부를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의 근원을 현재까지 가장 잘 설명한 책이다." – 「북리스트」**

국가 권력을 수십억 달러를 보유한 부유층이 장악하면서 발생한 각종 문제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언제부터 이런 불안한 사태가 시작됐을까? 저자는 이 책에서 노동조합을 제거하고 투표권을 억압하고 공교육을 최대한 민영화하고 헌법을 바꾸려는 움직임,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망가뜨리려는 자본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전략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추적한다. 저자가 지목한 이 치밀한 아이디어의 시초는 1986년 노벨상 수상자로도 잘 알려진 정치 경제학자 제임스 맥길 뷰캐넌이다. 그 저명한 경제학자와 그를 옹호한 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6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변화시킨 과정을 이 책은 상세히 설명한다.

백인 지식층이 국가 권력을 차지해야 한다는 계획은 일반 시민들에 비해 수적으로 열등한 소수의 부유층이 이 명확한 열세를 딛고 우위를 차지하게 해야 한다는 목표에서 시작됐다. 미국을 "만드는 세력"과 "장악하는 세력"으로 양분해야 한다는 뷰캐넌의 계획에 크게 동조한 기업가들, 우익 단체들은 앞 다투어 그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저자는 공공에 공개된 뷰캐넌의 문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오만하고 타협이라곤 절대 허락하지 않은 그의 저돌적인 계획을 낱낱이 재구성한다. 뷰캐넌은 "민주주의로부터 자본주의를 구해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나아가던 중 거대 에너지 화학 기업 '코크 인더스트리스' 소유주로 잘 알려진 찰스 코크를 발견한다. 정부가 성장하면 개개인의 자유가 줄어들고 위협을 받게 된다고 굳게 믿은 뷰캐넌이 여러 면에서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낀 찰스 코크는 뷰캐넌의 전략을 인정사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만들어낸다.

공립학교, 우편 서비스, 교도소, 노동법, 사회보장, 국가 의료보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혜택, 투표권 보장, 해외 원조,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된 소득세를 모두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고 본 뷰캐넌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정부의 올바른 역할을 법에 명시된 규칙이 준수되도록 관리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를 방어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뷰캐넌의 집요한 전략이 없었다면 오늘날 현실화된 민주주의의 극심한 갈등이 시작되

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의 계획이 공화당의 정권 장악으로 이어지게 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한다. 저자가 10년간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가 총망라된 이 책에는 우익과 거대한 자본가들의 소름 끼치는 연합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정치서다.

<목차>

서문. 남부 사람들의 조용한 거래
머리말. 마스터 클래스에 등장한 막스
1부. 아이디어의 구체화
1장. 누구도 우릴 막을 수 없다
2장. 시카고로 간 시골 소년
3장. 사업의 진짜 목적
4장. 껍질이 벗겨지면 그대로 둬라
5장. 정부로부터 자본주의를 보호해야 한다
6장. 혁명 타도에는 시간이 걸린다
7장. 미쳐가는 세상
8장.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9장. 타협은 없다
2부. 아이디어의 실행
10장. 빗장을 걸어 잠근 헌법
11장. 원칙을 무너뜨린 민주주의
12장. 콜럼버스를 부추긴 힘
3부. 추락
결론. 준비

<저자 소개>

낸시 맥밀란(Nancy MacLean)은 뉴욕타임스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저서 『Behind the Mask of Chivalry』와 시카고 트리뷴이 '최고의 현대 역사서'라 일컬은 『Freedom is Not Enough』 등을 발표했다. 현재 듀크 대학교 역사, 공공정책 교수를 맡고 있다.